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6/11℃ 목포 5/9℃ 여수 5/10℃

단기 4343년 (음력 2월 1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32호 1판 2010년 3월 25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夜~설렌다, 야구의 계절

불밝힌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광주 야구팬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24일 저녁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야간경기에 대비한 자체 홍백전을 벌이고 있다. KIA는 오는 27~28일 두산 베어스와 잠실에서 시즌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한국 프로야구 'V11 전설'에 도전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건희 경영 복귀…삼성전자 회장으로

이건희(68)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인 이인용 부사장은 24일 "이건희 회장이 오늘 자로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비자금 폭로에 따른 특검 수사로 2008년 4월 22일 퇴진을 선언한 이후 23개월 만이다.

이 부사장은 "삼성 사장단협의회가 지난 2월 17일과 24일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글로벌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복귀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지난달 24일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은 한 달여간 고심한 끝에 어제 수락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이달말까지 설치…사고 예방 기대

광주시내 내 영업용 개인·법인 택시 8천236대에 교통사고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가 이번 달 말까지 설치돼 다음달부터 작동된다.

광주시는 24일 "업체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개인·법인용 영업 택시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량 내부 촬영과 음성 녹음은 제외되고 차량 앞쪽의 상황만을 촬영하게 된다.

이 장치는 택시운전석 옆 조수석 상단의 카메라와 내·외장형 메모리카드, GPS 등으로 구성된다. 외장형 메모리카드는 50분 단위로 주행사실을 기록한 뒤 삭제되고, 내장형 메모리카드는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전후 30초간을 저장한다. 광주시는 택시 운전자의 기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전원 공급 배터리 및 내장형 메모리, GPS 등을 택시 내부에 장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까지 시범운행 택시에 대한 기기 성능점검과 현장 확인작업을 마쳤다"며 "이 장치가 택시운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영상 촬영하는 '블랙박스'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실제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택시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3천648건이 발생했으며, 1만대 당 사망자 27.18명, 1대 당 부상자 0.74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박람회 큰일났다

교통·숙박·재원조달·유치활동 총체적 부실

감사원 준비실태 감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2조1천억원을 들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박람회 주요 전시시설을 비롯, 교통·숙박대책 등 기반시설, 수익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유치 및 홍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부실해 자칫 세계적 망신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감사원은 2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직위가 Big-O(바다전시장) 조성사업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박람회 기간 교통 및 숙박대책, 전시시설 조성 사업의 부실한 준비 등 박람회 준비 과정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및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박람회 주제구현 핵심시설인 Big-O 조성사업에 대해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놓고도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만 줄어들게 해 향후 부실공사 및 완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경으로 Big-o는 가물막이 없는 부유식 오션타워로 시설하는 등 전시시설을 단순화했다. 주제관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춰지면서 현상공모 당선작에 포함된 수중시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등 당초 계획한 전시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숙박대책 등 기반시설 구축 분야도 부서간 책임 공방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람회장 주진입도로인 여수산단진입로와 연계되는 월래~낙포~호명구간(총 6.6㎞·사업비 316억원)의 경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여수시와 행안부 등 각 기관 이견으로 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박람회 기간 중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숙박대책도 해상호텔(500실), 일반숙박시설 정비(모텔 5천실), 민간아파트 임대(아파트 3천실), 캠핑카 활용(150대) 방안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이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수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콘크리트블록 등을 박람회장 부지 조성공사 사업부지에 쌓아두고 있는데도 조직위의 업무 태만, 국제심포지엄 대행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입학사정관제의 모든 것

전문 교수진 참여 3월27일 설명회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각 대학이 적용할 입학사정관제의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등 지난해와는 다른 제도들이 도입되는 만큼 차별화된 맞춤형 입시전략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광주일보사는 글로벌 영재학회와 공동으로 전남대학교,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김성호 KAIST 수리과학과 교수와 이상천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부의장, 박동혁 한국가이던스 자기주도학습 센터 소장, 김수용 KAIST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입학사정관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층구술면접의 사례와 대비안, 중요 평가요인, 진로 진학 탐색의 이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유·불리한 학생의 사례 등이 소개됩니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와 학교장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3월 27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4층)
- 강사 : 김성호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이상천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부의장
  박동혁 한국가이던스 자기주도학습센터 소장
  김수용 KAIST 물리학과 교수
- 대상 : 광주·전남지역 고교 진학담당교사 및 학교장
- 문의 : ☎010-3080-3693, 이메일 dd811@daum.net

光州日報社·글로벌영재학회